e-Journal *Homo Migrans* Vol.7 (Feb. 2013): 36-54

논문

1980년대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이주노동자와 신인종주의: 계급과 인종 사이

신 동 규

I. 서론

20세기 들어 테일러 주의에 입각한 생산방식의 발달은 자동차, 제철, 조선, 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공장에 비숙련 노동자들의 수요를 증가 시켰다. 이는 농촌의 농업 노동자들의 산업 프롤레타리아 화를 촉진 시키면서 노동인력의 지역 간 혹은 국경 간 이동을 증가시켰으며, 산업화가 늦은 주변국 또는 식민지로부터의 노동자 수입을 증가시켰다.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정에 투입되었으며 비위생적인 노동조건에서 장시간 위험에 노출 되어있었다.[1]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유럽 각국의 노동조합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는 한편 내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거리를 두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며 분쟁조절과 사회통합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2] 이것은 전통적으로 노동운동 내부에 존재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두 가지 시각으로 부터 기인한다. 첫 번째로 계급의식에 기반을 두어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단일전선'을 추구하며 차별을 철폐 하려는 경향이며, 두 번째로

1) 프랑스의 이민현상에 관해서는 Y. Lequin ed., *Histoire des étrangers et de l'immigration en France* (Paris: Larousse, 2006); G. Noiriel, *Longwy, Immigrés et prolétaire*(Paris: PUF, 1984); G. Noriel, *Le Creuset français, Histoire de l'immigration*(Paris: Seuil, 1988); P. Weil, *La France et ses étrangers*(Paris: Folio, 2004) (première édition 1991) 참조.

2) R. Pennix et J. Roosblad ed., *Trade unions, immigration and immigrants in Europe, 1960-1993* (New York: Berghahnbooks, 2000), 111-132; R. Gallissot et al., *Ces migrants qui font le prolétariat* (Paris: Méridien-klincksieck, 1994), 114; A. Morelli, «Ambiguïté et contradictions des rapports entre syndicats et étrangers: le cas des Italiens», *Brood & Rozen*, 1997/1, 65-71.

보호주의에 입각해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를 구분하고 노동시장 통제에 적극 개입하려는 태도이다.[3] 따라서 비계획적인 외국인 노동력의 이동에 부정적이며 내국인 노동자를 우선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모순적인 두 시각은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는 시기와(1930년대와 1970년대 이후)와 경제 호황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한 시기에(1920년대와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광의 30년') 명확하게 나뉜다.

1970년대 오일파동으로 인한 경제위기 이전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들은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부가노동력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동화(assimilation)' 또는 '통합(intégration)' 정책은 1970년대 까지는 부재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1974년 프랑스 정부가 경제이민의 제한과 기존 이민자의 통합을 이민정책의 기조로 삼으면서부터 이민자 통합정책이 논의되기 시작 하였으나 통합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의된 것은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다.[4] 1981년 프랑스와 미테랑(François Mitterand)의 집권 이후 프랑스에서 이민자들의 가족결합 정책이 시작되어 고향에있는-주로 북아프리카 및 남유럽- 가족들의 합법적 이주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러한 통합 정책이 구체화 되는 과정 중 하나였다.

이주노동자를 일시적인 노동력 공급 요인으로 보는 인식과 그로인한 구체적인 정책의 부재는 이들을 특수한 조건을 가진 집단보다는 '노동계급'의 일부로 파악하는 경향을 강화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은 외국인 노동자와 프랑스 노동자사이의 '권리 평등 투쟁(lutte pour l'églité des droits)'을 기본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정책을 만들어 냈다. 노동총연맹의 총비서 조르쥬 세기(Georges Séguy)가 강조하듯 노동조합은 "프랑스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의 동등한 권리, 동등한 월급, 동등한 생활수준"을 주장해왔다.[5]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실제로 정착하는 이민자의 숫자가 늘어나자 이들이 처한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는 시각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는 동시에 '통합'

3) 프랑스의 경우, 신동규, 「CGT의 이주노동자 정책: 모순과 한계, 1921-1981」, 『공존의 기술』(그린비, 2007), 343-346 참조.

4) 그 이전에는 동화, 통합, 편입등의 용어가 구별없이 사용되었다. 이권능, 「이민자 관점에서 본 통합을 위한 정부 노력의 현실과 한계」, 『공존의 기술』(그린비, 2007), 350.

5) *Lettres ouvertes à Georges Séguy, suppléant au Peuple*, n° 860. 15 février 1975, 53.

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유럽 노동조합들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e)'에 입각한 '차별철폐 투쟁(lutte contre la discrimination)' 구호는 1970년대까지 지배적이었던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평등' 구호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이주노동자와 노동·고용문제에 대한 유럽 노동조합들의 인식과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프랑스에서 명확하게 관찰되는 이러한 변화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조합이 계급투쟁의 '도구'에서 국가정책의 '사회적 파트너'로 변화하는 중·장기적 변화와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 변화는 노동계급으로써의 '단일성'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계급투쟁' 이념 아래 '이주노동자' 문제에 접근했던 종래의 원칙이 각 '에스닉(ethnic)'집단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주노동자들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역설적이게도 종래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을 둔 인종주의가 문화적·사회적 차이를 통해 '타자화'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신인종주의(neo-racisme)로 발전하는 현상과 궤를 같이 한다.[6] '인종이 없는 인종주의'로 정의 되는 이 새로운 인종주의는 종래의 유럽인들의(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유입과는 다른 이질적 문화 -이슬람-를 가진 북아프리카 출신의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즉 절대화된 문화적 차이를 통한 구별과 차별은 알제리인 이민 확대와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발전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후반부터 두드러지게 관찰되기 시작했다. [7]

---

6) 신인종주의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E. Balibar and I. Wallerstein,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New York: Verso, 1991), 19-29. 프랑스 민족전선(Front National)의 신인종주의에 대해서, 박단, 「현대 프랑스 사회의 인종주의: 민족전선의 이민정책과 신인종주의」, 『서양문명과 인종주의』(지식산업사, 2002), 249-255 참조. 인종주의와 이민자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 하시오. M. Marco et al., *Immigration et integration en Belgique francophone : Etat des savoirs* (Bruxelles: Editions académia, 2007); C. Delacampagne et L. Adler, *Une histoire du racisme* (Paris: Livre de poche, 2000); G. Noriel, *Populqtion, immigration, et identité nationale en France, XIXe-XXe siècle* (Paris: Hachette, 1992); G. Noriel. *Immigration, antisémitisme et racisme en France (XIXe-XXe siècle) : discours publics et humiliations privées* (Paris: Hachette, 2007).

7) 박단, 「현대 프랑스 사회의 인종주의: 민족전선의 이민정책과 신인종주의」, 245.

1982년부터 1983년 사이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파업은 신인종주의적 담론이 구성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특히 단순노동에 종사하던 파업 노동자들의 이중적 정체성 -단순 노동자(ouvrier specialisé)[8]와 이주노동자(travailleur immigré)-은 계급적 동질성을 추구하는 파업 노동자와 파업의 범위를 이주노동자로 한정 시키려는 기업/정부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며, 이 갈등은 바로 신인종주의적 담론이 나타나게 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로르 피티(Laure Pitti)가 지적하듯 이민 노동자가 포함된 분쟁을 '이민 투쟁(lutte de l'immigration)'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이 사건이 함의하는 노동자성 또는 '노동자 파업(grève ouvrière)'의 성격이 은폐된다.[9] 본고에서는 피티의 제안에 따라 파업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보고, 반대로 누가 이주노동자들이 다수 포함된 노동분쟁을 이주노동자의 투쟁으로 정의하는지 살펴보면서 프랑스에서 신인종주의적 담론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살펴 볼 것이다.

II.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의 증가와 노동조합의 이주노동자 정책: 비숙련 노동자? 또는 이주노동자?

1962년 알제리 독립과 프랑스의 식민지 경영 종결은 프랑스로 유입되는 이민의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전환점이었다. 알제리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1962년 3월 18일에 체결한 에비앙 협정(Accords d'Evian)은 전쟁의 종결과 함께 알제리와 프랑스 사이 협력과 교류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프랑스가 알제리의 독립을 인정하고 경제적, 기술적 원조를 하는 대가로 알제리에서 프랑스 또는 프랑스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특히 알제리에 거주하는 프랑스인들(Pied noir)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따라서 1962년 알제리 독립 이후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던 알제리인에 관한 문제는 양국 사이의 중요한 협의 대상이었다. 독립 이전 행정 구역상 도(département)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알제리 출신의 노동자들은 자

8)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ouvrier profesionnel(숙련공)'의 대칭의미로 쓰이는 'ouvrier spécialisé'는 생산과정에서 가장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이다. Adam Steinhouse가 'unskilled workers'로 번역한 예를 따라 여기에서는 '비숙련 노동자'로 번역함. A. Steinhouse, *Workers' Participation in Post-Liberation France* (New York/Oxford: Lexington Books, 2001), 34.

9) L. Pitti, «Grèves ouvrières versus lutte de l'immigration: une contoverse entre historiens», in *Ethnologie française*, vol. 31, 2001, 465-467.

유롭게 프랑스로 이동하여 단기간 체류하고 귀국하는 현상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10], 프랑스 정부는 알제리인의 상당수가 단기간 체류 후 귀국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두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인정하였다.[11] 이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 출신 국적자의 이주를 허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단기체류 후 귀국하는 이민자의 숫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이로 인해 1960년대에 들어서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가 급속하게 증가한다. 1962년 43만 명이던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1968년에는 65만 명으로 늘어났고, 1975년 인구조사에서는 109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1968년부터 1975년 사이 전체 이민증가량의 78퍼센트가 아프리카 출신이며, 이 기간의 증가율은 1968년 이전에 비해 약 2배에 이르렀다.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이 증가하던 시기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내국인 노동자들이 배척하는 노동조건이 열악한 업종에 종사하였다. 특히 여성노동자를 고용하기 힘든 건설, 자동차, 화학, 제철 등의 산업에서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흡수하였으며, 이러한 고용은 생산비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즉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거나 임금을 상승 시키는 것을 대체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 한 것이다.[12]

표1) 프랑스에 거주하는 국적별 인구(남·여 노동자, 여성, 16세미만 아동). (1974년 1월 1일)

국적	프랑스 거주	남여 노동자	여성 총계	16세미만 어린이	특징
알제리	845,694	450,000	80,000	226,000	부메딘 대통령이 이민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이민자의 숫자가 계속 증가.
포르투갈	820,000	390,000	205,000	239,000	1974년 전반기, 포르투갈인들은 신규 도착자의 1/4을 차지함. 4월 25일부터 식민지 전쟁을 피해 도망했던 청년들이 귀국함.

10) B. Strora et E. Temime, «L'immigration algérienne», in L. Gervereau, P. Milza et E. Termime(dir.), *Histoire de l'immigration en France au XXe siècle* (Paris: Editions d'Art, 1998), 125, 박단, 「알제리인의 이주와 정착」, 『현대 서양사회와 이주민: 갈등과 통합 사이에서』(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258에서 재인용.

11) B. Strora et E. Temime, «L'immigration algérienne», 130, 박단, 「알제리인의 이주와 정착」, 262에서 재인용.

12) 손영우, 「프랑스 노동시장의 이원주의 성격: 이민자와 이민 2세의 사회경제적 위치」, 『공존의 기술』(그린비, 2007), 256-259.

이탈리아	572,000	220,000	193,000	130,000	프랑스 국적취득으로 숫자가 줄어듦. (1962년부터 1972년 사이: 94 284)
스페인	570,595	260,000	197,000	130,000	1964부터 1969년 사이 숫자 증가한 이래로 줄어들고 있음. 1962년부터 1972년 사이 82 766명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
모로코	270,000	180,000	30,000	42,000	최근 모로코인들은 프랑스에[입국한] 신규 도착자 중 2위.
튀니지	150,000	95,000	25,000	29,000	모로코인들과 같은 경향.
1. 200,00명의 해외 영토 및 도 출신, 80,000명의 유고슬라비아인, 60,000명의 아프리카인(북아프리카인 제외), 45,000명의 터키인들이 있다.					

출처: André Vieuguet, Français et immigrés: Le combat du PCF(Paris: Editons sociales, 1975), 17.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은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공장으로 흡수되었다. 1969년 파리 근교에 위치한 르노(Renault) 자동차의 비앙꾸르(Billancourt) 공장에는 전체 직원의 39%에 해당하는 11,936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으며, 이중 알제리 출신이 3,842명, 모로코 출신이 2,062명, 튀니지 출신이 1,149명, 그리고 세네갈 출신이 610명으로 과거 아프리카 식민지 출신의 노동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유럽 출신의 노동자는 스페인이 1,690명, 포르투갈이 934명, 이탈리아 263명으로 아프리카 출신에 비해 월등히 적었다.[13] 쇼쏭(Chausson) 자동차 공장이 위치한 파리 북쪽의 주네빌리에(Gennevilier)에는 1954년 33,127의 주민 중 8,574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7,476명이 북아프리카 출신이었다. 1968년도의 인구조사에서는 46,099명의 주민 중 외국인은 12,556명이었으며, 그 중 북아프리카 출신은 10,058명이었다.[14] 지방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의 비율은 높았다. 1967년 12월을 기준으로 리옹(Lyon)의 외곽인 베니씨유(Vénissieux)에 위치한 베를리에(Berliet) 자동차 공장에는 11,000명의 노동자 중 1,193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다. 이중 알제리 출신이 6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독일(101명), 아르메니아(179명), 스페인(91명)으로 부터 온 이주노동자들이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들 중 비숙련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높았다. 베를리

13) J. Frémontier, *La Forteresse ouvrière: Renault* (Paris: Fayard, 1971), 111.

14) B. Massera et D. Grasson, *Chausson: une dignité ouvrière* (Paris: Syllepse, 2004), 206.

에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70%가 비숙련 노동자였으며 절반 이상은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 받는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15] 1968년 르노의 경우 그룹 전체에 17,488명의 외국인이 있었으며 이중 16,727명이 비숙련 노동자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들은 단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산업이나 건설 산업 분야에 흡수 되었다. 노동총연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CGT) 총비서인 죠르쥬 세기(Georges Séguy)가 프랑스에서 이주노동자들이 "2대 중 1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2채 중 1채의 주택과 도로의 90%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정도로 비숙련 노동 분야의 외국인 비율은 높은 수준이었다.[16]

표2) 르노 전체 공장에서 직무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분류 (1968년 9월 30일)

국적	숙련노동자	비숙련노동자	월급제 사무원	간부, 관리자	계
이탈리아	3,997	278	49	20	4,344
스페인					
포르투갈					
북아프리카	9,540	233	45	4	9,822
검은아프리카	2,192	10	6	0	2,208
기타	998	79	36	1	1,114
계	16,727	600	136	25	17,488

출처: J. Frémontier, La Forteresse ouvrière: Renault(Paris: Fayard, 1971),112.

에비앙 협정 직후 노동총연맹과 프랑스민주노동연맹(Confédération Française Démocratique du Travail, CFDT)은 이주노동자와 이민 문제에 있어서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1966년 1월에 발표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동 정책에 잘 드러난다. 이 공동정책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빈곤한 계층(catégories défavorisées)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의 구매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 두 노총의 최대 정책목표였다. 또한 1974년, 노동총연맹과 프랑스민주노조연맹은 외국인과 내국인 노동자들의 평등한 권리를 위한 공동 행동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이 프랑스에 단기간 체류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수립된 것이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관심은 외

15) Compte rendu du Comité d'Etablissement de Vénissieux, réunion du 18 janvier 1968 (Archives du CE-RVI)

16) G. Séguy, *Lettre ouverte à Georges Séguy*, Brochure, supplément au Peuple, n°860, fév. 1975, 53. 신동규, 「CGT의 이주노동자 정책: 모순과 한계, 1921-1981」, 『공존의 기술』(그린비, 2007), 323에서 재인용.

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조건과 프랑스 사회에 인간적인 편입에 집중되었으며, 체류기간 동안 프랑스인과 동일한 노동권을 가지는 문제가 이주노동자 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이주노동자들과 장기간 공존하는 문제는 논의 되지 않았으나, 이들의 자녀가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흔적이 노동조합의 정책에 나타난다.[17] 1960년대까지 프랑스 노동조합의 정책에서 이주노동자는 아직 특수성을 가진 에스닉(ethnic) 집단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노동과 고용 부분에서 나타난다. 즉 대부분 단순 노동에 종사하면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비숙련 노동자(OS)로 분류하여 대응하는 경향이 더욱 강했던 것이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를 특수한 집단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보편적인 노동자 계급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이주노동자들이 비숙련 노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종주의적 차별과 모욕이 공장에서 일상화 되자 이주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그들이 처한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적으로 생겨났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생명을 위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고온에 환기가 되지 않은 작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프랑스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관리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으며 프랑스인 관리자들이 인종주의적 태도로 이주노동자들을 모욕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었다. 1970년대에 르노자동차, 쇼쏭자동차, 리옹전선(Câbles de Lyon) 등에서 일어난 파업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잘 말해준다. 이들 기업의 노무관리 시스템은 과거 식민지시기에 형성된 제국주의 국가의 백인과 식민지의 흑인의 관계가 고스란히 공장으로 이전 된 것이었다. 따라서 '북아프라카의 노동자들=노예'라는 생각을 가진 관리자들에 의해 비인간적 취급을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경험은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식민지 상황의 연속으로 인식되었다. 쇼쏭의 한 이주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아주 열악한 노동조건이었습니다. 임금은 정말 아주 아주 아주 낮았고… 쇼쏭은 외국인 노동자, 특히 모로코 남부에서 온 노동자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 가격에나 일자리를 찾아 온 사람들 이었습니다. 쇼쏭은 프랑스 노동자들에게 조장, 작업조장, 감독관 같은 작은 직급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소홀히 대했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그리고

17) R. Mouriaux et C. Wihtol de Wenden, «Syndicalisme français et Islam»,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n°6, 1987, 801.

작업라인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모로코 출신의 아랍 노동자만 볼 수 있었어요."[18] 이러한 관계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외국인 혐오주의와 인종주의에 기반을 둔 관리자의 비인간적인 행위가 만연해 있었다. 르노의 한 노동자는 회사 측의 인종주의적 행동을 다음과 묘사하고 있다: "최악이자 새로운 것은 지금 관리자들이 우리를 검둥이와 더러운 인종으로 취급하는 야비한 말과 욕설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종을 더럽다고 취급하는 국영 플랑(르노)의 작업장에서, 바로 관리자들이 지저분한 방법으로 항상 군림하는 이 작업장에서 이러한 불쾌한 일이 일어납니다."[19] 이렇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인종차별과 비인간적인 처우로 말미암아 이주노동자 문제를 보편적 '노동계급'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점차 이주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동계 내부에서 제기 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인식변화는 프랑스민주노동총연맹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다. 1973년 제36차 프랑스민주노동총연맹 대의원 대회는 처음으로 '다국적성'과 '다문화'를 고려하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수립할 것을 토의하고 의결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국적 노동계급'의 문제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노동자'로써의 보편성 보다는 이주노동자의 특수성이 더욱 강조하는 것이었다.[20]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프랑스 최대 노총인 노동총연맹의 인식 변화는 1980년대 초가 되어서 이루어 졌다.[21] 이것은 오랫동안 이주노동자들이 '공존'의 대상이 아닌 '일시적 통합'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대부분 언젠가 본국으로 귀국할 비숙련 노동자로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빈곤한 계층'으로 여겨졌다. 이주노동자가 프랑스 노동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정책은 '하나의 노동계급'이라는 이름아래 정당화 되었지만,[22]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임

18) B. Massera et D. Grasson, *Chausson: une dignité ouvrière*, 228에서 재인용.

19) 1971년 르노-플랑 공장의 마오주의자들의 문서, X. Vigna, *L'Insubordination ouvrière dans les années 1968, Essai d'histoire politique des usines* (Rennes, PUR, 2007), 127에서 재인용.

20) 이주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프랑스 노동조합의 정책에 관해서는, 신동규, 「CGT의 이주노동자 정책: 모순과 한계, 1921-1981」, 331-336 참조.

21) 위의 글, 328.

22) *La Vie ouvrière*, 25 avril 1973.

금수준 향상을 통해 프랑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의 '다국적성'과 '다문화성'을 고려한 노동조합의 인식변화는 1980년대에 걸쳐 확대된 이민자에 대한 통합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이주노동자를 '일시적 통합'의 대상이 아닌 프랑스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통합' 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망은 이민자와 프랑스인 사이의 상호이해를 전제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총연맹은 이주노동자들의 문화, 관습, 종교적 전통을 존중하기 위한 실천을 강조하는 한편, 직업교육, 자녀교육 그리고 이를 위한 프랑스어 교육을 통합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파악했다.[23] 1970년대 까지 지배적이었던 '권리 평등 투쟁' 구호가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했다면, 이주노동자가 가지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대두와 함께 등장한 '차별철폐투쟁' 구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의 대상이자 주체인 이들이 '시민적 권리'에서 배제 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구호의 등장은 이주노동자 통합의 전제가 되는 '다문화성'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다문화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 경제적 통합추구가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이주노동자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 하는 것이었다.

Ⅲ.자동차 산업의 이주노동자 파업, 1982-1983 : 비숙련 노동자의 파업인가 이주노동자인가?

1982년과 1983년 사이 파리 근교에 위치한 르노, 시트로엥, 탈보 자동차 공장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파업은 대부분이 비숙련 노동자인 이주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폭발하는 사건임에 동시에, 프랑스 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작업장내의 인종주의 문제가 언론에 다시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1982년 4월 9일 르노의 플랑 공장의 조립라인에서 비숙련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하자 곧 전 공정에서 생산이 멈추었다. 비숙련 노동자들은 작업속도를 직접 통제하기를 원했으며, 노동 강도를 높이는 유난히 반복적인 작업을 거부했다. 이것은 노동 강도의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대다수가 이주노동자인 비숙련 노동자들은 여름휴가를 고향인 북아프리카에서 보내기 위해서 5주째 유급휴가를 요

23)신동규, 「CGT의 이주노동자 정책: 모순과 한계, 1921-1981」, 334.

구하였다. 4월 25일 사측이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거부하고 5주간의 유급휴가만 인정하는 합의안을 제안했을 때 노동총연맹은 '한걸음 전진'이라고 평가 했으며 프랑스민주노동연맹과 노동총연맹-노동자의 힘(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Force Ouvrière, CGT-FO)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결국 이 합의안을 승인한 노동자들은 4월 30일에 파업을 끝낸다. [24]

르노의 플랑 공장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 시트로엥의 올네-수-브아(Aulay-sous-Bois) 공장에서는 1,000여명의 비숙련 노동자들이 400 프랑의 임금인상과 생산라인의 작업속도를 늦출 것을 요구하며 일을 멈췄다. 파업이 시작되고 노동자들이 대화를 요구하자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다: "나는 검둥이들과 대화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단지 노예일 뿐이다."[25] 따라서 노동자들은 무엇보다도 존엄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노동 강도 약화를 요구하며 5월 31일까지 파업을 했다. 르노 노동자들의 파업이 노동조합에 의해 '그럭저럭' 지지를 받았다고 평가받는데 반해[26], 시트로엥에서는 어용노조인 자유노동조합연맹(Confédération des Syndicats Libres, CSL)에 맞선 노동총연맹과 프랑스민주노동연맹이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5월 초에 파업이 주변 지역인 르발루아(Levallois)와 아니에르(Asnière)에 있는 시트로엥 공장으로 확산되자, 사측은 어용노조와 관리자들을 동원해 파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시트로엥은 생산하기를 원한다!", "어린염소(Bicots: 북아프리카 원주민을 비하하는 표현)들은 모스크바로!" 등의 구호을 외쳤다.[27] 5월 말 법학교수인 장-자크 뒤페이로(Jean-Jacques Dupeyroux)의 중재를 통해 사측이 비숙련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합의가 성사되고, 6월1일 파업은 끝난다. 그러나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자 1983년 봄 다시 파업이 발생한다.

1982년 6월 2일 시트로엥에서 파업이 끝나자마자 프와시(Poissy)에 있는 탈보(Talbot) 자동차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탈보는 시트로엥의 모기업인 쁘조그룹 (Peugeot Société Anonyme)에 속해있는 자동차 생산업체로 어용노조가 활동하고 있었다. 1,000여명의 비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5,400여명

24) R. Astruc, *Du travailleur au gréviste militant magrébin: Les grève des OS de 1982 et 1983*, Maitrise d'Histoire, Université Paris VII, 1998, 16.
25) *Ibid*. 17에서 재인용.
26) *Le Monde*, 3 mai 1982.
27) R. Astruc, *Du travailleur au gréviste militant magrébin*, 19.

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부분적으로 참여했으며 10,000여명의 노동자들은 생산을 위해 파업 노동자들과 대치했다. 파업에 참여한 비숙련 노동자들은 시트로엥과 같은 요구를 했으며, 이슬람교도를 위한 예배장소를 요구했다. 시트로엥과 마찬가지로 장-자크 뒤페이로의 중재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져 7월 3일, 탈보의 최고 경영자가 중재안에 서명을 하게 된다.

이 파업들은 비숙련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을 위해 벌인 대표적인 파업이었다. 파업 노동자들은 노동조직(organisation du travail), 직업교육(formation professionnelle), 임금, 유급휴가 그리고 작업장에서 개인과 노동조합의 자유 등 전통적으로 비숙련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것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생산을 멈췄다. 그리나 이들 비숙련 노동자의 대부분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주노동자들 이었기 때문에 몇몇 요구사항에 이들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었다. 르노의 플랑 공장에서는 아프리카에 고향을 둔 노동자들이 여름 휴가를 고국에서 보내기 위해 5주째 유급휴가를 요구했으며, 프와시의 탈보에서는 작업장에서 자유의 확대를 요구하면서 이슬람교도를 위한 예배장소를 요구한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이 파업들의 경우 – 특히 르노와 시트로엥의 경우- 언론에 주로 비숙련 노동자의 파업으로 소개되었으며 간혹 이민자가 강조되는 정도였다.[28] 파업 참가 노동자들도 이 상황이 이주노동자의 파업으로 비추어 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탈리아계 노동총연맹 간부인 엘레오노라 트레헬(Eleonora Tréhel)은 이 파업이 이주노동자 파업으로 규정되는 것을 특히 경계하면서, 언론에 의해 비숙련 노동자들의 요구가 '외국인들의 선동'으로 보도되기 전에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이 이민자가 프랑스의 공장을 닫게 만든다고 말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나라의 파시스트들과 인종주의자들에게 논리를 제공하고 싶습니까?"[29] 그러나 파업 노동자들은 -그리고 파업 노동자들에게 대표성을 인정받은 노동총연맹 노동조합은[30]- '외국인'과 '이민자'를 부각시키는 행동을 외국인 혐오주의에 기반을 둔 인종주의적 차별이라고 생각

28) N. Hatzfeld et J.-L. Loubet, «Les conflits Talbot, du printemps syndical au tournant de la rigueur», *Vingtième Siècle, Revued'histoire*, n°84, 2004 /4, 158.

29) Daniel Schneidermann, "L'affrontement", *Le Monde*, jeudi 5 janvier 1984, *cité* in *Ibid.*

30) 당시 탈보와 시트로엥에는 어용노조인 자유노동조합연맹(CSL)의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노동총연맹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파업을 이끌어 나갔다.

했으며, 이에 맞선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연속된 파업을 통해 비숙련 노동자들 중 이주노동자들의 특수성이 점차 드러나고 있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는 이들이 프랑스 사회의 구성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며-적어도 프랑스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니콜라 핫츠펠드(Nicolas Hatzfeld)와 쟝-루이 루베(Jean-Louis Loubet)에 의하면 이민문제는 협상과정에서 '부차적'인 문제였다.[31] 적어도 파업 기간 동안 노동자들에게 외국인으로써 겪는 불평등과 '이주노동자'라는 정체성은 부차적인 것이었으며, 파업의 일차적 동기는 비숙련 노동자로써 생산구조의 최하층에서 겪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이었다. 따라서 열악한 노동조건으로부터 비롯된 파업의 쟁점을 '이주노동자의 선동'으로 축소하려는 사측의 의도에 맞서, 노동자들은 스스로 비숙련 노동자라는 계급 정체성과 그 동질감이 주는 연대의식을 강조했다. 또한 파업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의 파업으로 한정시키려고 하는 기업주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한편, 공장 외부에서 활동하는 일부 프랑스인 노동조합 간부들이 '이민자들의 파업'을 '그들의 파업'으로 규정하고 주변의 노동자들과의 연대활동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32]

Ⅳ. 계급문제에서 인종문제로: 신인종주의 담론의 형성

1976년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수상이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 "90만 명의 실업자가 있지만, 동시에 2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존재한다면, 고용문제의 해결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33]라고 주장하듯,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민을 통제하려는 정부 또는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극우 정당의 정치선동의 공격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종류의 정치담론 형성과 재생

31) *Ibid.* 159.

32) 파업 직전 시트로엥 올네-수-브아 공장에 입사 한 숙련 노동자가 이와 같은 상황을 증언한다. 그는 트로츠키 주의 성향의 정치정당 활동을 했으며, 공장에서 노동총연맹 조합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파업을 주도했던 노동총연맹 노동조합에서 수집했던 파업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다. 인터뷰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파업 당시정황만 전한다. (시트로엥 올네-수-브아 공장의 노동총연맹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투쟁(Lutte ouvrière) 활동가들이 장악하고 있다.)

33) 손영우, 「프랑스 노동시장의 이원주의 성격: 이민자와 이민 2세의 사회경제적 위치」, 280에서 재인용.

산은 노동시장에서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인식을 확대시켰으며, 실업률 증가의 원인을 이민에서 찾는 경향을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저 흑인은 우리 빵을 빼앗기 위해 왔다", "외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차지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 등의 인종주의적 표현이 회사, 동네, 학교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34] 1980년대 이후 생산의 기계화와 해외이전으로 인하여 대량해고와 실업률 상승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자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인종차별에 의한 사회갈등 문제가 점점 부각되었다. 1981년 총선에서 0.18%를 득표하는데 그치고, 대선에서는 500인의 후보추천 서명을 받지 못했던 민족전선(Front National)이 1983년 일부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10% 내외의 득표를 기록한 것은 인종주의적 정치담론에 대한 견고한 지지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198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11.06%를 획득한 민족전선은 확고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 초 프랑스 자동차 산업에서 발생한 연속 파업은 바로 민족전선의 급부상이 이루어지기 전 이주노동자의 이미지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었다.

1982년 시트로엥과 탈보에서 발생한 분쟁의 중재자로 나섰던 법학교수 쟝-자크 뒤페이로도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해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다. 파업 한 달 후 그는 이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비숙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사측에 권고했다.[35] 외국인 혐오주의에 의한 차별과 인종주의 문제를 지적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에 국한된 특수한 문제가 아닌 전체 비숙련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문제로 인식했다.

그러나 1983년 르노 플랑에서 임금문제로 비숙련 노동자들의 파업이 또 한 번 발생한 후 사회당 소속의 국무총리 피에르 모르아(Pierre Mauroy)는 이 문제를 이민문제에 연결시킨다. 그는 1월 27일 "남아있는 주요 어려움은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생겼다. 그들에 관한 문제는 내가 잘 안다. 그런데 그들은 프랑스 사회 현실을 잘 모르는 정치, 종교 조직에 의해 선동되었다." 라고

34) *Le Guide du militant de la Métallurgie CGT*, novembre 1981, n° 164, 6.

35) N. Hatzfeld et J.-L. Loubet, «Les conflits Talbot, du printemps syndical au tournant de la rigueur», 158.

주장하고 이러한 담론은 수많은 일간지에 의해 재생산 된다.[36] 또한 내무부 장관 가스통 데페르(Gaston Defferre)는 이 분쟁을 언급하면서 '근본주의자(intégriste)'와 '시아파교도(chiites)'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파업 노동자들의 종교적 과격성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슬람 수니파 지역인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데페르의 표현은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은 비숙련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주노동자 파업으로 한정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또한 계급문제를 이민문제로 치환하면서 보편적인 노동문제를 이민자의 특수한 문제로 바꾸어 버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이미 1982년 파업 당시 파업에 반대하는 사측의 태도에서 드러나 있었다. 따라서 파업 노동자 및 노동조합은 대량생산 체제에서 비롯된 노동조건 악화문제를 이민자 문제로 제한하는 기업의 논리에 단호히 대처했다. 노동계의 이러한 태도는 노동총연맹 금속연맹 위원장인 앙드레 생종(André Sainjon)의 주장에 잘 드러난다. 그는 시트로엥의 파업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이민자들의 파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이 용어가 분쟁의 범위를 엄청나게 축소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면서[37], 1982년 자동차 산업에서 발생한 비숙련 노동자 파업이 '이민자들의 파업'이라고 불리는 것에 반대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이민자 파업'이라는 용어가 분쟁의 범위를 이민자로 제한하면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과도한 노동강도로 요약되는 사회문제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파업이 '노동자 파업' 또는 '비숙련 노동자의 파업'으로 정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Ⅴ. 결론

980년대 초, 르노, 시트로엥, 탈보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파업은 1970년대 경제위기 이래로 지속된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외국인들이 프랑스인들의 일자리 빼앗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던 시기에 발생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프랑스 사회에서 이민과 인종주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방식이 변화하는데 전환점 역할을 했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는 이주노동자

36) *Nord Eclaire*, 27 janvier 1983; *Le Monde*, 30-31 janvier 1983.

37) A. Sainjon, Préface à Floriane Benoit, ***Citroën,*** *Le printemps de la dignité* (Paris: Editions sociales, 1982)

들이 곧 본국으로 돌아갈 부가노동력에서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시기로, 이미 프랑스에 정착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가족 결합정책은 이러한 맥락에서 만들어졌다. 한편 이 파업을 거치면서 이주노동자가 프랑스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선동하는 국민전선이 확고한 지지기반을 얻기 시작했다. 극우정당의 약진 이면에는 이질적 문화를 가진 이민자들이 '공화국'의 가치를 공격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었던 프랑스의 사회, 정치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었다. 즉 신인종주의적 담론이 형성되는 동시에 극우정당의 세력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프랑스의 자동차 산업 분야는 196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비숙련 노동자로 저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다. 따라서 비숙련 노동자인 동시에 북아프리카 출신으로써 이주노동자라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자동차 산업의 파업참여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비숙련 노동자로 규정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했다. 반면에 기업과 정부는 파업의 확산을 막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이민자의 문제로 제한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바로 노동자 파업이 이민자의 투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신인종주의의 담론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즉 파업에 대한 모르아의 발언은 생물학적 '인종' 구분을 통한 종래의 인종주의가 문화적 차이에 입각해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신인종주의적 담론으로 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 탈식민화(décolonisation) 시대에 이르러 인종주의는 프랑스를 침략하는 이질적인 '문화'를 배척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이들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조건의 피해자가 아닌 문화적 '침략자'로 규정하게 된다. 인종주의에 의해 '계급문제'가 사라진 것이다.

노동조합에 의해 강조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투쟁(contre la discrimination)' 구호는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이것은 노동계급으로써의 '단일성'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계급투쟁' 이념아래 '이주노동자' 문제에 접근했던 종래의 정책에서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선이 근본적으로 인종주의와 싸우는데 적합한가? 최근의 인종주의는 생물학적 '인종'이 아닌 '다문화'를 거부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민자들의 새로운 문화가 발전하는 것을 '침략'으로 인식하면서 적대시 하는 것이다. 1989년 프랑스 공화주의의 상징인 정교분리원칙과 이슬람 문화가 충돌한 '히잡사건'이 발생했을때 신우익의 이론가인 알랭 드 브누아(Alain de Benoist)는 역설적이게도

히잡을 쓴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낼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이러한 시각은 무슬림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다름'을 강조하고 극대화 시키려는 신인종주의적 전략의 기본 논리였다.[38] 이것은 1980년대 초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민자들의 파업으로 제한하면서 사용한 논리와 유사한 것이었다.

인종주의를 지배에 이용하는 편에서는 사회문제를 이민문제의 테두리에 가두고 그들의 저항을 무례한 이방인들이 민주주의사회의 가치를 뒤흔든다고 선동한다. 2005년 파리의 방리유 사건에서도 극우와 우파는 청소년들이 자동차를 불태우는 행위를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는데 실패한 '이민2세대'들의 폭력 행위로 규정한데 반해 노동조합, 좌파정당 및 시민단체는 이 문제를 노동과 교육에서 소외된 서민계층의 저항으로 파악하고 보편적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들의 분노표출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이주노동자 또는 이주자가 연관된 문제를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민자들의 특수한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따라 인종주의와 싸우는 전선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노동자들의 보편적 노동자성을 외면하는 것이 혹시 새로운 인종주의적 질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되물어 보며 이 글을 마친다.

충북대, jajusdk@naver.com

38) 박단, 「프랑스 : 히잡사건」, 『현대 서양사회와 이주민 : 갈등과 통합 사이에서』(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179.

1980년대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이주노동자와 신인종주의

Class and race

SHIN Dongkyu

In France, workers' insubordination which erupted into a general strike in 1968 has persisted in the beginning of 1980's and unskilled workers (ouvriers spécialisés) always remained holder of this disobedience. A series of strikes which broke out in the French motor industry from 1982 to 1983 showed the continuity of workers' insubordination. This labor dispute took place in the factories located in Paris suburbs such as Renault-Flin, Talbot-Poissy and Citroën-Aulay-sous-bois, in which migrant workers, mostly north African-born, were charged in simple and repetitive production tasks. These underprivileged workers in the vertical hierarchy initiated collective actions and vigorously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in order to claim higher salaries and an improvement of their working conditions; and sometimes more religious liberty for Muslim practitioners. This situation reflects the new pattern of immigration flow beginning with Evian Accords signed in 1962 by France and FLN putting an end to Algerian war and promoting a cooperative exchange between two countries. In this respect, the rise of North African immigration has become evident in France and the demography of the immigration had a wider impact during the 1980's. As the motor industry is considered as a window on the French society, these strikes generated important political discussions. This situation attracted public attention, because of a high social tension caused by poor working conditions and wage system which subordinates workers to a production system based on the scientific management. The more this event was broadcasted on television, the more it had an impact on French society, revealing the double identity of strikers: unskilled workers and migrant workers from North Africa. Much as the impact of social tension, strikers were considered as foreign intimidators who threatened

French culture and republican idea. By separating them from working class and unity of unskilled workers, opponents of social conflict limited the range of these strikes to migrant workers from different cultures. Thus, this showed the development of “Neo-Racism” discourse in France during the 1980’s.

주제어: 이주노동자, 비숙련 노동자, 파업, 자동차 산업, 신인종주의
Key Words: Migrant workers, Unskilled workers, Strike, Motor industry, Neo-Racism